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표현의 해석적 모호성과 관련된 언어-문화적 현상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Institut d'Estudis Catalans에 따르면 카탈루냐어에서 사용하는 전통적 시각 표현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quart(=quarter)'로 나누는 것에 기반을 두어 '8시15분/30분/45분'은 각각 'És un quart de nou.', 'Són dos quarts de nou.', 'Són tres quarts de nou.'라고 표현하며 'Són les vuit i quinze.', 'Són les vuit i trenta/mitja.', 'Són les vuit i quaranta-cinc.'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표현들은 방언에서 발견되는 변이형이나 소위 국제적 표기 방식으로 고려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탈루냐 전통적 시각표현 방식은 'cinc(=five)'와 'deu(=ten)'를 제외하고 다른 기수사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은 결국 카탈루냐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디지털시계의 발명과 아날로그시계의 디자인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카탈루냐어 회화체에서 'quart' 체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Són quarts of nou'과 같은 문장이나 'entre dos i tres quarts'와 같은 표현도 16분과 44분 사이에 어떤 시각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해석상의 모호성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은 감산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단어 'quart'는 어원적으로 타중체계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므로 시계 체계와 관련되는 '15분'이란 구체적인 양적 의미는 원래 없다는 사실을 문법적 특수성과 대화상의 맥락 그리고 특수한 시계의 발명이나 아날로그시계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수성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카탈루냐어 시각 표현 체계, 타중 체계, 해석적 모호성, quart(=quarter)

1. 들어가는 말

스페인의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Catalunya: 스페인어식 표기로는 Cataluña)는 2015년 기준으로 7,508,106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수도는 바르셀로나이다. 카탈루냐 자치 정부가 운영하는 웹 페이지에서는 이 지역의 공식어로 카탈루냐어(catalán), 카스티야어(castellano), 옥시타니아어(occitano)가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¹⁾ 카스티야어란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어로 알려진 언어로 스페인어로 ‘español’로 표기하지만 카탈루냐인들은 이를 카스티야어라고 표기하고 있다. 카탈루냐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스페인 사람이라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카탈루냐 지역에서 옛 카스티야 왕국의 언어인 카스티야어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카탈루냐에서는 카탈루냐어가 쓰이며 이와 함께 카스티야어와 옥시타니아어도 사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므로 카탈루냐어는 그들의 표현 의지에서 보듯이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속한 한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유럽에서 존재하는 로망스어의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지역 명을 스페인어식으로 Cataluña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탈루냐식인 Catalunya로 표기하는 이유는 카탈루냐어에 존재하지 않는 철자 ‘ñ’로 자신들의 지역 명을 표기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라고 알려진 ‘español’이란 단어 역시 스페인어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철자 ‘ñ’를 포함하므로 그들이 스페인어를 카스티야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스페인 왕립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 y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앞으로 RAE로 표기)이 스페인어인 카스티야어의 언어적 규범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카탈루냐에도 카탈루냐어에 대한 규범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관으로 Institut d'Estudis Catalans(앞으로 IEC로 표기)가 존재한다. IEC에서는 2016년 카탈루냐어의 문법에 대한 출판물로 ‘la nueva Gramàtica de la llengua catalana’를 소개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출판물에서 소개된 새로운 내용들 중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

1) 카탈루냐 자치정부 웹페이지 자료. 출처: <<https://web.gencat.cat/es/temes/catalunya/coneixer/>>.

(time-telling)에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시각 표현을 하게 되며 그러한 표현은 해당 언어의 어휘와 문법적 특성이 반영된다.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카탈루냐어는 시각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언어들 보다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시각에 대해 최소 8가지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 카탈루냐어 시각 표현의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 가능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IEC는 ‘*la nueva Gramàtica de la llengua catalana*’에서 새로운 내용의 일부로 시각 표현에 대한 언급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방언에서의 관찰되는 다양성, 카탈루냐인들이 갖는 시각 표현의 복잡함에서 비롯된 시계의 독특한 표기체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시각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화의 특수성 등 카탈루냐의 시각 표현과 관련된 언어-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특성

1. 카탈루냐어의 사용 현황

카탈루냐어는 로망스어 계열의 언어로 Martínez Celdrán(2007: 124)에 따르면 언어학적 측면에서 비강세 음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지역, 즉 서부 카탈루냐어와 동부 카탈루냐어로 나뉜다고 한다.



Martínez Celdrán(2007: 124)

[그림-1] 카탈루냐어의 지리적 분포

위 지도에서 보듯이 카탈루냐어는 이베리아 반도 내의 행정구역상의 카탈루냐 지방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발렌시아 지방(Comunidad Valenciana), 안도라(Andorra), 발레아레스 군도(Islas Baleares), 옛 카탈루냐 영토였던 프랑스의 로세론(Rosellón) 및 무르시아(Murcia) 지방의 엘 카르체(El Carche), 이탈리아의 알게로(Alghero/Alguer) 등 그 사용지역이 매우 넓게 펼쳐져 있다. 카탈루냐 통계청(Institut d'Estadística de Catalunya)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95%가 카탈루냐어를 이해하는데 2013년 기준을 보면 일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표-2>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인 카스티야어가 50.73%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탈루냐어는 그 뒤를 잇는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 통계는 카탈루냐 지방에서 카탈루냐어를 이해하는 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그 사용 인구수는

절대적으로 카스티야어가 카탈루냐어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카탈루냐 지역의 카탈루냐어 사용의 연령대별 분포²⁾

Cataluña. 2011

	Población de 2 años y más		Lo sabe hablar		Lo sabe leer		Lo sabe escribir		No lo entiende	
	Lo entiende	%	hablar	%	leer	%	escribir	%	lo entiende	%
De 2 a 14 años	1.016	985 96,97	805	79,26	704	69,25	616	60,66	31	3,03
De 15 a 29 años	1.207	1.158 95,95	1.024	84,87	1.077	89,30	975	80,79	49	4,05
De 30 a 44 años	1.950	1.859 95,31	1.483	76,03	1.653	84,76	1.323	67,82	91	4,69
De 45 a 59 años	1.490	1.426 95,72	1.046	70,19	1.216	81,58	698	46,85	64	4,28
De 60 a 74 años	1.005	947 94,26	606	60,36	701	69,74	297	29,58	58	5,74
De 75 a 84 años	476	432 90,71	280	58,76	297	62,47	114	23,92	44	9,29
De 85 años y más	163	143 87,76	101	62,43	103	63,15	46	28,55	20	12,24
Total	7.306	6.949 95,12	5.345	73,16	5.750	78,71	4.069	55,70	357	4,88

〈표-2〉 카탈루냐 지역의 사용 언어들과 그 사용자별 통계³⁾

Población de 15 años y más según lengua inicial, de identificación y habitual. 2013

	Miles de personas			Porcentaje (%)		
	lengua inicial	lengua de identificación	lengua habitual	lengua inicial	lengua de identificación	lengua habitual
Catalán	1.940	2.275	2.270	31,02	36,38	36,29
Castellano	3.449	2.974	3.173	55,14	47,55	50,73
Ambas lenguas	153	438	427	2,44	7,00	6,82
Árabe	152	132	79	2,43	2,11	1,26
Aranés	2	2	1	0,04	0,04	0,02
Rumano	56	45	24	0,90	0,71	0,39
Gallego	33	13	2	0,53	0,20	0,04
Bereber	42	33	24	0,67	0,53	0,39
Francés	39	27	12	0,62	0,44	0,20
Portugués	26	19	6	0,42	0,31	0,10
Ruso	32	28	14	0,51	0,45	0,22
Inglés	27	27	26	0,42	0,43	0,42
Italiano	29	24	4	0,47	0,38	0,07
Otras lenguas	193	153	97	3,09	2,45	1,55
Otras combinaciones de lenguas	31	34	74	0,50	0,54	1,18
No consta	50	30	20	0,80	0,48	0,32
Total	6.254	6.254	6.254	100,00	100,00	100,00

2) 출처: <<https://www.idescat.cat/economia/inec?tc=3&id=da04&lang=es>>.

3) 출처: <<https://www.idescat.cat/economia/inec?tc=3&id=da01&lang=es>>.

그러나 <표-1>과 <표-2>의 통계상의 수치와 앞에서 언급한 카탈루냐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카탈루냐어 화자의 수를 감안해 볼 때 카탈루냐어는 유럽 내에서 거의 단일 국가 언어 사용자의 수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4)

2.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의 일반적 특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와 지리적 측면에서 꽤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 카탈루냐어는 각 지역마다 방언의 특색도 존재한다. Torres i Vilatarsana(2001:

- 4) 카탈루냐 정부는 카탈루냐어 화자의 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약 천만 명의 사람들이 카탈루냐어를 사용한다(Unos 10 millones de personas hablan catalán.)’라는 내용을 홍보한다.



출처: <http://llengua.gencat.cat/web/.content/documents/exposicions/arxius/fullet_cast_cat.pdf>

164)는 카탈루냐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는 소위 ‘8시45분’에 해당하는 시각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고 한다.

- (1) a. tres quarts de 9
three quarters of 9
- b. les 9 menos quart
the-pl 9 minus quarter
- c. 9 hores menos el quart
9 hours minus the quarter
- d. les 8 i tres quarts
the-pl. 8 and three quarters
- e. falta un quart per a les 9⁵⁾
is left a quarter untill the-pl 9
- f. tres quarts per a les 9
three quarters untill the-pl 9

Torres i Vilatarsana(2001: 164)

(1a)는 표준 카탈루냐어에서 사용하는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이며 (1b-f)는 카탈루냐의 방언에서 관찰되는 특성들이다. (1)의 예문들 중 ‘8시45분’이라는 시각을 표현하는 경우 그 기준시를 ‘8시’로 두는 표현은 (1d)이며 나머지는 모두 ‘9시’를 시각 표현의 기준으로 둔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동일한 시각 표현에 있어서 관찰되는 다양성은 그러나 카탈루냐어의 방언에서 관찰되는 특성만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중부 카탈루냐에서만 관찰되는 ‘저녁 8시09분’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최소 8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 (2) a. 국제적 표기(Notació internacional)
Són les vint hores i nou minuts.
(It) BE-pl. the-pl twenty hours and nine minutes
- b. 일반적 형식 표기(Notació general formal)

5) ‘per a’는 복합 전치사(cf. Dols & Mansell(2017: Ch.8)로 ‘~까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그 의미에 가장 근접한 번역을 제시한다.

Són les vint i nou minuts.

(It) BE-pl. the-pl twenty and nine minutes

c. 혼합 형식 표기(Notació mixta formal)

Són les vuit del vespre i nou minuts.

(It) BE-pl. the-pl eight of the-sg. evening and nine minutes

d. 전통적 표기(Notació tradicional)

Són gairebé les vuit i deu [del vespre].

(It) BE-pl. nearly the-pl eight and ten (of the evening)

e. 전통적 표기의 변이형(Variants de la notació tradicional)

Són quasi les vuit i deu [del vespre].

(It) BE-pl. almost the-pl eight and ten (of the evening)

f. 초과분이나 부족분에 의거한 표기(Notació per excés o per defecte)

Falten sis minuts per a un quart de nou del vespre.

FALTAR-3pl. six minutes untill a quarter of nine of the evening

Falten sis minuts perquè sigui un quart

FALTAR-3pl. six minutes for that BE-3.sg.subj a quarter

de nou [del vespre].

of nine (of the evening)

g. 초과분이나 부족분에 의거한 표기의 변이형

(Variants de la notació per excés o per defecte)

Manquen sis minuts per a un quart de nou del vespre.

MANCAR-3pl. six minutes untill a quarter of nine of the evening

Manquen sis minuts perquè sigui un quart

MANCAR-3pl. six minutes for that BE-3.sg.subj a quarter

de nou [del vespre].

of nine (of the evening)

h. 시간 간격표기를 동반하는 표기

(Notació amb assenyalament de termini)

D'aquí a sis minuts serà un quart de nou [del vespre].

From here to six minutes BE(future)-3.sg a quarter of nine (of the evening)

IEC web⁶⁾ 7)

6) 출처: <http://criteria.espans.iec.cat/files/2015/10/5-1-2_Notacions-hor%C3%A0ries-del-catal%C3%A0-central_01_graella.pdf>.

방언에서 관찰되는 다양성과 더불어 단일 지역에서조차도 (2)와 같은 다양한 표현이 존재함에 따라 IEC는 ‘*la nueva Gramàtica de la llengua catalana*’에서 다음과 같이 시각 표현에 대한 규범적 내용을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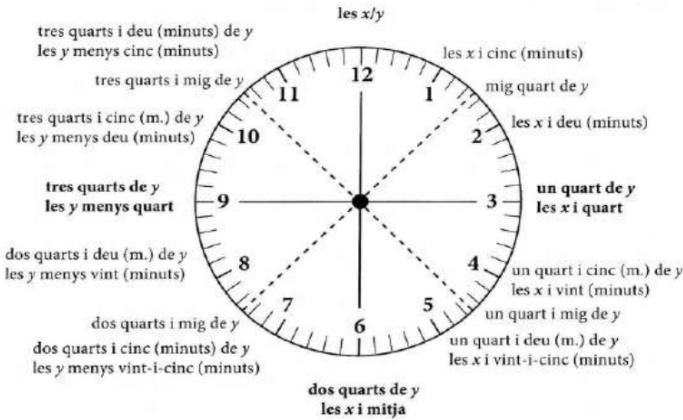
- (3) L’expressió de les fraccions horàries. Hi ha dos sistemes diferents per a expressar les fraccions horàries segons els parlars, a més de l’internacional:
- a) al Principat, es compta per quarts l’hora en curs a mesura que es va completant, fet que és específic de la llengua catalana (sistema de campanar: un/dos/tres quarts de vuit [vuit = hora en curs]; § 31.2.5.1a)
 - b) en valencià i baleàric, per a la primera mitja hora s’afegeix l’escreix respecte a l’hora ja completada i per a la segona mitja hora es resta el que falta per a completar l’hora en curs (el sistema de rellotge: les set i quart/mitja [set = hora ja completada]; les vuit menys quart [vuit = hora en curs]; § 31.2.5.1)
 - c) el sistema internacional, d’ús tènic i especialitzat, afegeix a l’hora ja completada la fracció en minuts de l’hora en curs (les set (i) quinze § 31.2.5.1)⁸⁾

위 내용에 따르면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은, 국제적인 표기방식 (cf.(2a)(3c)) 외에, 각 지역의 언어적 특성에 의거하여 두 가지의 표기 방식이 존재한다. 먼저 (3a)에 따르면 표준 카탈루냐어 사용 지역은 카탈루냐어 고유의 타종체계(sistema de campanar)에 의거하여 ‘15분’을 의미하는 명사 ‘quart’를 사용하여 ‘7시15분’, ‘7시30분’, ‘7시45’분에 해당하는 표현을 각각 ‘un quart de vuit(literal translation: a quarter of eight)’, ‘dos quarts de vuit(lit. trans.: two quarters of eight)’, ‘tres quarts de vuit(lit. trans.: three quarters of eight)’으로 표현하며 이 때 ‘8’을 의미하는 기수사 ‘vuit’은 다음에 가리킬 ‘시’를 의미한다. 즉 ‘un quart de vuit’는 ‘8시에 도달하기까지 15분이 경과했다’의 의미이므로 결과적으로 ‘7시15분’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발렌시아와 발레아레스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3b)는 시계방식(sistema

7) 동사 ‘faltar’와 ‘mancar’는 ‘부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자동사이다.

8) 출처: <https://www.iec.cat/llengua/documents/GIEC-Presentació_MostraDeNovetats.pdf>.

de rellotge)에 의거하여 ‘1분’에서 ‘30분’까지는 증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31분’부터 ‘59분’까지는 다가올 ‘시’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les set i quart(lit. trans.: the seven and quarter)’, ‘les set i mitja(lit. trans.: the seven and half)’, ‘les vuit menys quart(lit. trans.: the eight minus quarter)’는 각각 ‘7시15분’, ‘7시반’, ‘8시15분전’을 의미하게 된다. 끝으로 (3c)는 국제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에 ‘분’을 더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추가하여 시각 표현의 이해를 돕고자 IEC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공한다.



[그림-2] IEC가 시각 표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그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a)는 ‘quart’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으로 ‘X시X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시각 표현에서 ‘7시15분’, ‘7시30분’, ‘7시45분’을 의미하려면 ‘quart’를 사용하여 각각 그 증가분을 사용하지만 등위접속사인 ‘i’를 사용하는 용례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3a)와 달리, (3b)의 경우에는 예문 ‘les set i quart’를 통해서 등위접속사 ‘i’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3c)에서도 예문 ‘les set (i) quinze’를 통해 수의적으로 접속사 ‘i’의 출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의 (3a)의 설명과 위의 [그림-2]에 의거하여 카탈루냐어 전통적 표기방식으로 ‘8시5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 (4) [8:05] Són les vuit i cinc.
 (It) be-pl. the eight and five

(3a)에서는 ‘quart’에 기초한 설명을 하고 다른 시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에서는 ‘시’가 아닌 ‘분’에 해당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 5를 의미하는 기수사 ‘cinc’와 10을 의미하는 기수사 ‘deu’만이 허용된다. 즉 (3a)의 설명과는 별도로 (4)는 IEC가 제공하는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에 근거한 표현인 것이다.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에서는 ‘cinc’와 ‘deu’만이 사용되는 제약이 존재하므로 다음 (5)의 예문들은 이러한 제약에 근거한 표현들로 볼 수 있다.

- (5) a. [8:07] És mig quart de nou.
 (It) be-sg. half quarter of nine
 b. [8:08] És mig quart de nou.
 (It) be-sg. half quarter of nine
 c. [8:10] Són les vuit i deu.
 (It) be-pl. the eight and ten
 d. [8:15] És un quart de nou.
 (It) be-sg. a quarter of nine
 e. [8:20] És un quart i cinc de nou.
 (It) be-sg. a quarter and five of nine

(4)와 (5c)는 기수사 ‘cinc’와 ‘deu’가 각각 전통적 방식의 조건에 부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5d)는 국제적 방식인 (3c)처럼 15를 의미하는 기수사 ‘quinze’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ex.: **quinze de nou*)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e)는 20을 의미하는 기수사 ‘vint’는 전통적 방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므로 ‘15분’의 의미하는 ‘un quart’에 접속사 ‘i’와 5분을 의미하는 ‘cinc’가 사용되어 ‘un quart i cinc’가 ‘15분+5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5a)와 (5b)는 전통적 방식에 의거하여 동일한 구조로 표현이 이루어졌지만 ‘8시7분’과 ‘8시8분’을 모두 의미하므로 ‘분’개념에서 보면 정확한 시각 표현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방식이 기본

적으로 ‘quart’에 의거한 표현이라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카탈루냐어에서 명사 ‘quart’가 시각의 표현에서 ‘15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시간의 ¼’이라는 분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영어의 ‘quarter’, 스페인어의 ‘cuarto’, 이탈리아어의 ‘quarto’에 의미적 등가성을 부여하여 유추할 수도 있지만 [그림-2]에서 보듯이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은 ‘1시간’을 4등분하는 것과 더불어 ‘mig quart(lit. trans: half quarter)’가 가리키는 점선을 보면 전통적 방식의 기본적인 4등분에 ‘mig quart’의 의미가 가미되어 8등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표기방식은 기본적으로 ‘quart’에 기초하여 시각 표현을 하는 것을 (3a)의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다.

발렌시아나 발레아레스 지역의 방언이 카탈루냐의 전통적 방식인 (3a)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6)과 같이 동일한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사용하는 카스티야어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은 IEC가 전통적 시각 표현에만 그 형식을 고수하지 않고 ‘국제적 방식’이라는 용어로 (6)과 같은 카스티야어의 구조를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6) [8:15] Son las ocho y quince/cuarto.
(It) BE-pl. the eight and fifteen/quarter

(6)과 같은 구조가 카탈루냐 지역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IEC의 기술은 결국 지리적으로 맞닿은 지역의 언어인 카스티야어의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시계의 타종과 관련된 시각 표현의 용어 ‘quart’

앞 절 (3a)에서 살펴보았듯이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은 ‘quart’에 기초한 방식이며 IEC는 이를 시계방식이 아닌 타종 방식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처럼 시계의 보유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던 시계가 타종으로 대중에게 시각을 알렸던 만큼 이베리아 반도 역시 공공용도의 시계⁹⁾는 타종 방식을 사용하였다. IEC는 다음의 언급을 통해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이 타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다.

La notació més tradicional als Països Catalans es basa en els quarts i els mitjos quarts, a més dels minuts. És coneguda com el *sistema de quarts* o *sistema de campanar* perquè està basada en els tocs dels quarts als campanars (un quart, un toc; dos quarts, dos tocs, i tres quarts, tres tocs). Aquesta notació no s'utilitza a tot el domini lingüístic i pot provocar confusions en les persones no avesades a aquesta nomenclatura, però té un gran abast al Principat de Catalunya.¹⁰⁾

즉 전통적인 방식은 'quart'나 'mig quart'를 소위 'quart 체계' 또는 '타종 체계'로 언급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타종(un toc)은 'un quart', 두 번의 타종(dos tocs)은 'dos quarts', 세 번의 타종(tres tocs)은 'tres quarts'를 의미(cf. Royo(1992), Corbera(1996))하며 비록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이러한 용법을 모르는 이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까지 언급한다. 결국 'mig quart'는 (5a)와 (5b)에서 보듯이 정각 8시 타종과 8시 15분에 이르러 행해지는 'un quart'의 타종간의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분'개념에서는 정확한 시각 표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시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지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분'개념과는 무관한 시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면 'mig quart'는 숫자 '1'과 '2' 사이에 있으므로 '7분30초', 'un quart i mig(lit. trans.: a quarter and half)'가 '4'와 '5' 사이에 있으므로 '22분30초', 'dos quarts i mig(lit. trans.: two quarters and half)'은 '7'과 '8' 사이에 있으므로 '37분 30초', 마지막으로 'tres quarts i mig(lit. trans.: three quarters and half)'는 '10'과 '11'에 위치하므로 '52분

9) 이베리아 반도의 공공용도의 시계의 역사는 예전에는 현 스페인의 세비아(Sevilla)의 la Giralda에 1396년 설치되었다고 Mariana가 언급하였으나 Francisca Olmedo de Cerdá(2003)는 발렌시아의 Reloj Viejo라는 거리에 최초의 발렌시아 공공시계가 세워져 1413년까지 존재하였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발렌시아의 공공용도 시계가 Reloj Viejo라는 거리에 설치되었으나 중세 당시 발렌시아 거리가 매우 좁은 편이어서 시계의 타종 소리가 울리는데 부적합하여 이후 대형 교회의 탑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Reloj Viejo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nchis Sivera는 세비아의 la Giralda보다 18년이 앞선 1378년 문헌에서 독일 출신 시계장인 Juan Alemany의 언급과 함께 발렌시아에 24시간의 표시와 타종이 가능한 시계 설치와 관련된 계약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10) 출처: <http://criteria.espais.iec.cat/files/2015/10/5-1-2_Les-notacions-horàries_01.pdf>.

30초'라고 '분'의 개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에서는 'mig quart'가 '7분30초'라는 정확한 시간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5a)와 (5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에서 사용하는 'quart'는 국제적인 개념에서 '1시간의 1/4'의 의미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15분'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분'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quart'개념에 입각한 시계 표기체계의 특수성

스페인의 한 일간지인 *La Vanguardia*는 2008년 12월 인터넷 판으로 다음과 같이 '카탈루냐어로 시각을 말하는 최초의 손목시계 발명'이란 기사¹¹⁾를 실는다.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a news article from the website 'LA VANGUARDIA'. The page title is 'Tecnología'. The article title is 'Inventan el primer reloj digital de pulsera que da la hora en catalán'. Below the title, there is a short summary: 'Un innovador combinado alfanumérico permite la traducción horaria basada en cuartos y minutos que faltan y pasan del cuarto de hora'. The article text is partially visible, starting with '이 신문기사는 한 중소기업인 Tiktaktek07이라는 회사가 Horacat이라는 시계를 발명했다는 내용으로 최초로 카탈루냐어로 정확하게 시간을 글과 숫자로 표시한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4시52분~53분'을 의미하는 'Són tres quarts i mig de cinc'와 같은 시각 표현이 화면에 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신문기사는 한 중소기업인 Tiktaktek07이라는 회사가 Horacat이라는 시계를 발명했다는 내용으로 최초로 카탈루냐어로 정확하게 시간을 글과 숫자로 표시한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4시52분~53분'을 의미하는 'Són tres quarts i mig de cinc'와 같은 시각 표현이 화면에 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11) 출처: <<http://www.lavanguardia.com/internet/20081208/53592773665/inventan-el-primer-reloj-digital-de-pulsera-que-da-la-hora-en-catalan.html>>

다음 [그림-3]은 숫자로 ‘9시22분40초’를 가리키고 있으며 글로 ‘un quart i mig’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전통적 표기방식이므로 정확한 ‘분’개념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전통적 표기 방식의 예12)

한편 이 기사는 ‘4시52분~53분’을 가리키기 위해 시계화면에 ‘3/4 de 5 i 7’와 같은 표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tres quarts’가 분수 ‘3/4’를 읽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통적 시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3/4 de 5 i 7’이라는 구조는 ‘tres quarts de cinc y set minuts’라고 읽는 방식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2c)와 같은 혼합 형식 표기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방식은 7을 의미하는 기수사 ‘set’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기사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quart’만이 아니라 ‘분’의 개념도 사용되는 시계라는 언급에 비추어보면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자세한 시각의 표현을 위해 다양한 기수사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그림-4]에서 보듯이 ‘4’는 ‘4분’을 의미하므로 혼합 형식 표기도 가능한 시계임을 알 수 있다.

12) 출처: <<https://www.hola.com/imagenes/novedades/2010111549939/hora-cat/reloj-digital/castellano-catalan/0-164-898/reloj--b.jpg>>



[그림-4] 혼합 형식 표기 방식의 예¹³⁾

Tiktaktek07의 Horacat은 [그림-3]에서 보듯이 글로 표기되는 경우는 전통적 방식에 근거하며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 [그림-4]에서 보듯이 혼합 형식 표기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다.

(7) [8:22]

a. 전통적 표기:

És un quart i mig de nou [del vespre].

(It) BE-3.sg. a quarter and half of nine of the evening

b. 혼합 형식 표기:

És un quart de nou del vespre i set minuts.

(It) BE-3.sg. a quarter of nine of the evening and seven minutes

(8) [8:23]

a. 전통적 표기:

És un quart i mig de nou [del vespre].

(It) BE-3.sg. a quarter and half of nine of the evening

b. 혼합 형식 표기:

És un quart de nou del vespre i vuit minuts.

(It) BE-3.sg. a quarter of nine of the evening and eight minutes

‘quart’의 반에 해당하는 ‘mig quart’가 사용된 전통적 방식인 (7a)와 (8a)는 ‘8시22분’과 ‘8시23분’의 구분이 없으며 ‘분’ 개념인 ‘minut’이 사용되는 혼합 형식 표기인 (7b)와 (8b)는 정확하게 ‘분’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즉 글로 시각을 표현하는 [그림-3]은 전통적 표기에 입각한 방식이며 숫자로 표기하

13) 출처: <<https://www.jornal.cat/imatges/noticies/horacat.jpg>>

는 [그림-4]는 혼합 형식 표기에 입각한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혼합 형식 표기인 (7b)와 (8b)는 ‘cinc’와 ‘deu’이외의 기수사를 사용하여 ‘분’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¹⁴⁾ [그림-4]와 같은 방식이 가능하도록 시계를 제작한 것이다.

시각 표현에서 ‘cinc’와 ‘deu’만이 사용되는 제약은 다른 아날로그시계의 표기방식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5]¹⁵⁾



[그림-6]¹⁶⁾

[그림-5]는 기본적으로 ‘quart’에 기초하여 1/4, 2/4, 3/4의 표기 사이에 ‘i5’와 ‘-5’를 표기하여 가령 ‘8시5분’은 ‘les vuit i cinc’, ‘8시10분’은 ‘8시10분’에서 5분을 뺀 시각인 ‘un quart menys cinc de nou(lit. trans.: a quarter

- 14) Horacat은 가령 ‘4분’을 표시하는 경우 [4]와 같이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은 ‘2시 7분전’을 의미하며 2시에 도달하기까지 부족한 부분인 ‘7분’을 [7]과 같이 표기한다. 즉 [x]는 ‘x minut’을 읽는 것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기능하므로 ‘8시35분’을 전통적 시각 표현인 ‘Són dos quarts i cinc de nou [del vespre]’의 표기로는 [2/4 i 5 d 9]라고 해야 할 것이며 혼합 형식 표기라면 ‘Són dos quarts de nou [del vespre] i cinc minuts.’에 해당하는 [2/4 d 9 i 5]라고도 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Horacat은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는 혼합 표기 방식을 사용하므로 ‘8시35분’은 [2/4 d 9 i 5]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2/4 i 5 d 9]라고 표기한다면 ‘Són dos quarts i cinc minuts de nou [del vespre]’라고 읽게 되어 전통적 방식과는 거리가 먼 표기 방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림출처: <<http://laveudet.blogspot.kr/2009/11/horacatcat-aprendre-dir-lhora-en-catala.html>>

15) 출처: <<http://www.cpln.cat/public/altres.php?opcio=detall&idCam=524&idNot=1549>>

16) 출처: <http://dhh3yazwboecu.cloudfront.net/278/1011-3_1.jpg>

minus five of nine)’으로 읽는 방식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6]은 ‘quart’에 기초한 점에서 [그림-5]와 같으나 ‘menys’를 사용하지 않고 접속사 ‘i’만을 사용하여 ‘i5’, ‘i10’과 같은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림-6]에 따르면 ‘8시5분’은 [그림-5]의 방식과 같지만 ‘8시10분’은 ‘les vuit i deu’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림-5]의 시계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림-6]의 시계는 혼합 형식 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카탈루냐의 시각 표현의 기본적인 특성은 전통적 표기의 경우 다가울 ‘시’를 기준으로 하고 경과한 시간은 ‘quart’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그 이외의 여러 방식이나 방언에서는 전통적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시각 표현에 있어서 카탈루냐 전통적 방식이 타종 방식에 의거하여 오늘날의 ‘분’ 개념의 시각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정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확성의 부재와 방언의 특성으로 인한 표현의 다양성은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는 시계의 표기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시각 표현의 부정확성에 따른 언어적 현상

1. 다양성인가 일관성의 부재인가?

IEC는 ‘*la nueva Gramàtica de la llengua catalana*’에서 제공하는 [그림-2]에서 보듯이 ‘X시10분’은 ‘les X i deu’라는 하나의 구조만을 제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표기 방식에서도 기수사 ‘deu’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 2장의 [그림-5]는 ‘les X i deu’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un quart menys cinc de X’와 같은 표현의 사용을 유발하는 방식의 시계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Badia i Margarit(1962: 21)는 ‘8시10분’을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모두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 (9) a. les vuit i deu (minuts)
 b. un quart de nou menys cinc (minuts)
 c. un quart menys cinc de nou

Badia i Margarit(1962: 21)

Puig & Puig(2000: 98)의 경우도 (9c)의 구조가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는 데 이는 소위 감산운용자(subtraction operator)(cf. Di Sciullo & Español-Echevarría(2017))의 사용을 허용하는 언급이지만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에서 부족분을 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5]의 시계라면 (9b,c)의 표현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만 (9a)의 표현은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게 되며 [그림-6]과 같은 시계는 (9a)는 이해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9b,c)를 이해하기에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IEC의 ‘l’Oficina de Correcció i Assessorament’의 조언 하에 운영되는 웹 ‘Comunicació digital’에서 제공하는 ‘카탈루냐의 시계(Un rellotge català)’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시각 표현에서 보다 더 나은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5분’이나 ‘10분’을 ‘quart’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그나마 이 두 표현 ‘cinc’와 ‘deu’도 기계식 시계의 도입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기술한다.¹⁷⁾ 따라서 오늘날은 ‘35분’이나 ‘40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dos quarts i cinc’, ‘dos quarts i deu’처럼 ‘30분’을 의미하는 ‘dos quarts’에 ‘cinc’와 ‘deu’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표기하지만 ‘40분’을 ‘tres quarts menys cinc(lit. trans: three quarters minus five)’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표기 방식은 기수사 ‘deu’의 사용을 허용하므로 (9b)나 (9c)와 같이 감산운용자를 사용하는 용법

17) Comunicació digital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cinc, i deu

És molt comú afegir 5 o 10 minuts als quarts per tal de donar més precisió al sistema tradicional, tot i que suposem que aquests períodes no es van utilitzar fins a la implantació dels rellotges mecànics.

S'afegeixen 5 o 10 minuts als quarts, sempre en positiu. Per exemple *dos quarts i cinc* o *dos quarts i deu*. Per tant, no és correcte l'expressió *tres quarts menys cinc* que havíem incorporat a la primera versió.

출처: <http://www.comunicaciogigital.com/rellotge_catala/quarts_tradicional.htm>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9b)와 (9c)처럼 ‘menys’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이 갖는 구조적 특성에 기초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을 통하여 제약을 두는 것이다. 앞에서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방식으로 ‘8시22-23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7a)를 보았는데, 만약 (9b,c)가 가능하다면 (10a,b)가 가능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카탈루냐어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이다, 그 이유는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은 기본적으로 감산운용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7a) És un quart i mig de nou [del vespre].

(10) a. * Són dos quarts menys mig de nou [del vespre].

(It) BE-3.pl. two quarters minus half of nine of the evening

b. * Són dos quarts de nou [del vespre] menys mig.

(It) BE-3.pl. two quarters of nine of the evening minus half

Torres i Vilatarsana(2001)의 언급처럼 전향적 관점(prospective view)의 시각 표현방식, 즉 접속사 ‘i’를 통해서 다가올 ‘시’를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분을 더해가는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을 IEC가 규범으로 강조한다면 (9b,c)의 구조에 근거하여 감산운용자 ‘menys’를 사용하면서 기준시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방식인 (10a,b)와 같은 과생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국제적 표기 방식을 허용한다면 카탈루냐어는 시각 표현에서 그 다양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규범에서 어긋나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IEC의 ‘la nueva Gramàtica de la llengua catalana’가 허용하는 국제적 표기 방식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카탈루냐어 본연의 정체성을 잃는 효과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카탈루냐어 언론에서도 자신들의 시각 표현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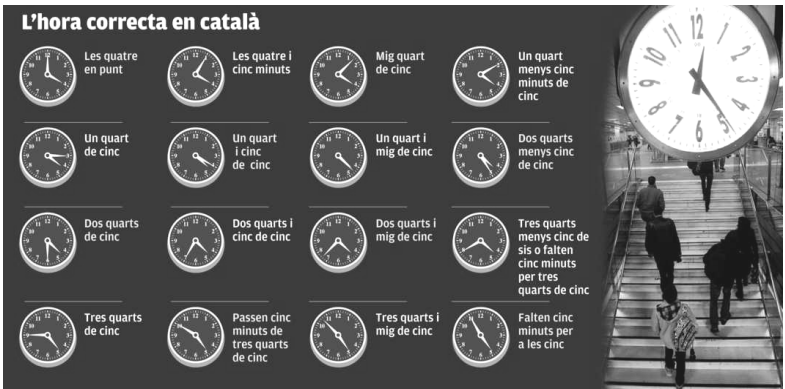
SOCIETAT BARCELONA - 25 abril 2013 2.00 h

☆ f t w e p s

Catalunya perd l'hora

- La forma pròpia de dir les hores en català està decaient amb el pas del temps, sobretot entre les generacions més joves
- Aquest mètode no compleix els principis d'immediatesa de la transmissió de paraules

[그림-7] *El Punt Avui* 인터넷 신문 기사의 일부¹⁸⁾



[그림-8] *El Punt Avui* 인터넷 신문 기사의 일부

[그림-7]은 카탈루냐 지역의 인터넷 일간지 *El Punt Avui*가 2013년 4월 25일자로 카탈루냐 지역에서 카탈루냐 고유의 시각 표현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내용을 싣고자 ‘카탈루냐는 시간을 잃는다(Catalunya perd l'hora)’라는 제목을 갖는 기사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으로 수록된 위 [그림-8]에는 카탈루냐어로 옳은 시각 표현(L'hora correcta en català)을 소개하는 취지로 여러 시각의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 ‘4시25분’과 ‘4시40분’을 ‘Dos quarts menys cinc de cinc (lit.trans.: Two quarters minus five of five)’, ‘Tres quarts menys cinc de sis (Three quarters minus five of six)’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할 필요

18) 출처: <<http://www.elpuntavui.cat/article/2-societat/5-societat/639856-catalunya-perd-lhora.html>>

가 있다. 이 기사는 카탈루냐어로 시각 표현을 하는 고유의 방법(La forma propià de dir les horas en català)을 소개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시40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Tres quarts menys cinc de sis’라고 표기한 것은 일견 ‘Tres quarts menys cinc de cinc (Three quarters minus five of five)’라고 표기해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 수준의 아쉬운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4시25분’과 ‘4시40분’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모두 ‘menys’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menys’의 사용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웹 ‘Comunicació digital’에서 제공하는 ‘Un rellotge català’에서 ‘40분’을 ‘tres quarts menys cinc’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적시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enys’를 사용하는 방식은 Mestres et. al.(1995: 594-596)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IEC는 시각 표현에서 표준 카탈루냐어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이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이는 방언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해서 언어 현상의 기술(description)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방언에서 관찰되는 특성이 표준 카탈루냐어의 어떠한 규범에 배치되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카스티야어의 접촉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순히 외견상 카스티야어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용법을 카스티야어의 영향이 아닌 국제적 표기 방식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기술하는 것은 규범서의 수준으로는 매우 구체적이지 못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국제적 표기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근거는 카탈루냐가 독립을 주장할 정도로 자신들의 지역을 단일 국가로 간주하는 의지가 있으므로 카탈루냐 스스로를 국가라고 보아 카스티야어를 외국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카스티야어의 용법을 국제적 표기 방식이라고 기술한다고 볼 수 있다.

2. 시각 표현에서의 모호성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시를 포함한 시각 표현에서 감산운용자의 사용이 없으며 다가오는 ‘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가산 방식이 이루어진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통적 방식은 기수사 ‘cinc’와 ‘deu’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20시00

분'에서 '20시10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11) a. [20:00]
Són les vuit [del vespre] en punt. / Són les vuit en punt [del vespre].
- b. [20:01]
Són les vuit [del vespre] tocases. / Són les vuit tocases [del vespre]
- c. [20:02]
Són les vuit [del vespre] tocases. / Són les vuit tocases [del vespre].
- d. [20:03]
Són les vuit [del vespre] ben tocases. / Són les vuit ben tocases [del vespre].
- e. [20:04]
Són gairebé les vuit i cinc [del vespre].
- f. [20:05]
Són les vuit i cinc [del vespre].
- g. [20:06]
És vora mig quart de nou [del vespre].
- h. [20:07]
És mig quart de nou [del vespre].
- i. [20:08]
És mig quart de nou [del vespre].
- j. [20:09]
Són gairebé les vuit i deu [del vespre].
- k. [20:10]
Són les vuit i deu [del vespre].

(11a-f)과 (11j,k)의 예문들은 동사 'ser'가 'les vuit'과 일치하는 복수형 'Són'으로 사용되며 (11g-i)는 'mig quart'와 일치를 보여 단수형 'És'가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cf. Fabra(1912)) 시각 표현에서 'quart'가 출현하는 경우 동사 'ser'는 항상 'quart'의 단/복수 자질에 따라 일치현상을 갖는데 그 증거로 '20시25분'의 경우는 다음 (12)처럼 '25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un quart i deu'가 사용되더라도 'un quart'의 단수 자질과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12) [20:25]

És un quart i deu de nou [del vespre].

(12)의 ‘un quart’와 (11h,i)의 ‘mig quart’는 모두 문법적으로 단수 자질을 가진다. 앞 2장의 (3a)와 [그림-2]에서 살펴보았듯이 ‘quart’는 $\frac{1}{4}$ 에 기초한 수학적 개념을 함의하면서 기본적으로 타종체계에서 비롯된 개념이지만 ‘mig quart’는 타종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수학적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un quart’는 한 번의 타종을 의미하지만 ‘mig quart’는 ‘ $\frac{1}{2}$ 번의 타종’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날로그시계는 추상적인 시각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그 추상적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체라는 물리적 공간을 사용한다. 이 공간을 4등분하면 그 $\frac{1}{4}$ 에 해당하는 부분이 ‘un quart’로 표현되므로 이 ‘un quart’를 다시 2등분했을 때 그 $\frac{1}{2}$ 은 ‘mig quart’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mig quart’라는 표현은 ‘un quart’을 물리적으로 2등분한 것으로 이를 다시 추상적인 시각 표현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각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아날로그시계가 갖는 물리적 원형체에서 ‘un quart’는 ‘ $\frac{1}{4}$ ’을 차지하므로 ‘mig quart’는 [그림-2]에서처럼 ‘ $\frac{1}{8}$ ’을 차지하는 분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카탈루냐어는 [그림-2]처럼 시각 표현에서 1시간을 8등분하는 것일까?

‘Comunicació digital’에서 제공하는 ‘Un rellotge català’에서는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의 최소단위는 ‘분(minuts)’이 아니라 ‘mig quart’이며 1시간은 8개의 ‘mig quart’로 이루어진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해 보면 카탈루냐어는 (11h,i)를 볼 때 최소의 단위를 통해 정확한 시각을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11)의 전체 예문들 중에서 정시를 나타내는 (11a)를 제외하고 오늘날의 ‘분’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는 시각은 (11f)와 (11k) 뿐이다. 이는 카탈루냐인들이 ‘quart’에 기반을 둔 시각 표현을 사용하므로 ‘un quart’를 시계의 원형체에 근거하여 형용사 ‘mig’를 사용하여 ‘quart’의 반을 나타내고자 ‘mig quart’를 사용하지만 $\frac{1}{8}$ 과 $\frac{3}{8}$ 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13)과 같은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3등분 할 경우 $\frac{1}{3}$ 에 해당하는 ‘cinc’와 $\frac{2}{3}$ 에 해당하는 ‘deu’의 사용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 (13) *És un quart i dues terçeres de mig quart de nou.
 (It) BE-3.sg. a quarter and two thirds of half quarter of nine

앞 (3b)에서 발렌시아와 발레아레스 지역의 방언에서 ‘7시반’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les set i mitja(lit. trans.: the seven and half)’가 가능함을 보았다. 여기에서 ‘mitja’는 ‘mitja hora’를 의미하며 이러한 표현방식은 카스티야어의 경우에서도 ‘las siete y media’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hora’는 최소 단위가 아니지만 카탈루냐에서는 ‘mitja hora’ 그리고 카스티야어에서도 ‘media hora’가 가능한 점은 최소 단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표현이므로 ‘mig quart’는 최소 단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EC의 설명에 근거해보면 카탈루냐어의 시각 표현에서는 1시간은 ‘quart’에 의거하여 4등분으로 나뉘지지만 ‘mig quart’를 최소 단위로 가정하면서 8등분으로 나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카탈루냐어에서 ‘mig quart’는 ‘cinc’보다 더 큰 시간적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단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에서는 ‘quart’가 ‘시’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분’의 개념에서 보면 (11b,c)와 (11h,i)에서 보듯이 하나의 표현이 여러 시각을 나타내므로 시각 표현에서 모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1b,c)와 (11d)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로는 부사 ‘ben(lit.trans.: very or well)’의 사용여부이며 공통점으로는 형용사적 용법의 분사(adjectival participle)인 ‘tocades(lit. trans.: striked)’가 사용되어 ‘les vuit’을 수식하고 있다.¹⁹⁾ 이러한 특성은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이 타종에 근거한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동사 ‘tocar’는 기본적으로 카탈루냐어에서 타종 개념에 입각하여 시각 표현에서 사용되는 동사이다.²⁰⁾ 8시 정시 타종에 근거하여 ‘tocades’는

19) 동사 ‘tocar’의 분사형은 남성 단수는 ‘tocat’, 남성 복수형은 ‘tocats’, 여성 단수형은 ‘tocada’, 여성 복수형은 ‘tocades’이다.

20) IEC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사 ‘tocar’의 시각 표현과 관련된 정의와 그 예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C] *tocar hores*

: Un rellotge, una campana, fer sentir els sons indicadors de les hores. (시계, 타종, 시각을 알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

Ara toca la una. ‘이제 한시다’

‘les huit’을 수식하며 기수사 ‘cinc’는 타종 개념과 무관하므로 (11e)와 (11f)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시와 ‘un quart’의 타종의 중간 시각은 ‘mig quart’가 사용되지만, 본 연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mig quart’는 타종 개념과 무관한 표현이므로, ‘tocar’의 분사형인 ‘tocat’이 수식할 수 없어 출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4) a. [20:11]
És vora un quart de nou [del vespre].
- b. [20:12]
És vora un quart de nou [del vespre].
- c. [20:13]
És vora un quart de nou [del vespre].
- d. [20:14]
És gairebé un quart de nou [del vespre].
- e. [20:16]
És un quart tocat de nou [del vespre]
- f. [20:17]
És un quart de nou [del vespre] tocat.
És un quart tocat de nou [del vespre]
- g. [20:18]
És un quart de nou [del vespre] ben tocat.
És un quart ben tocat de nou [del vespre].
- h. [20:19]
És gairebé un quart i cinc de nou [del vespre]

(14a), (14b), (14c)는 각각 다른 시각이지만 ‘quart’를 사용하는 전통적 방식이므로 서로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의 근접성(가까이, 가깝게)을 의미하는 부사 ‘vora’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에서 ‘vora’가 사용되는 경우는 ‘tocar’의 분사형이 사용되지 못한다. (14a,b,c)

Ja han tocat dos quarts? Me'n vaig corrents. ‘벌써 30분이야? 뛰어 가야겠다’
Són les tres tocaes. ‘3시다’

에서는 ‘un quart’가 그 내부에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리키는 시각은 실제로 ‘un quart’의 타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tocat’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 (14e,f,g)는 모두 ‘un quart’의 타종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각이므로 모두 ‘tocat’의 사용이 이루어진다. 한편 ‘거의’의 의미를 갖는 부사 ‘gairebé’는 ‘X시04분/09분/14분/19분/24분/29분/34분/39분/44분/49분/54분/59분’에서만 등장하는데 이는 그 구조가 [Y quart(s) i cinc/deu de X]와 같이 ‘quart’와 기수사 ‘cinc’나 ‘deu’가 출현하는 정확한 시각 표현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부사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gairebé’가 사용되는 경우 역시 ‘vora’와 마찬가지로 정확성보다는 근접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tocar’의 분사형 수식은 가능하지 않다.

카탈루냐어에서는 ‘cinc’와 ‘deu’만이 전통적 시각 표현의 정확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수사이지만 이들 두 기수사뿐만 아니라 ‘vora’와 ‘gairebé’ 두 부사도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tocar’의 분사형의 수식이 이루어지는 구조 역시 ‘분’개념에서 보아 부족한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들 요소 모두 ‘분’개념에서 보면 모두 정확성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부가적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이 ‘quart’에 기초해서 야기되는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이 요소들의 사용 역시도 정확성의 부재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결국 IEC가 (3b)와 같은 방언의 현상과 국제적 표기 방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전통적 방식인 ‘quart’사용의 용법과는 다른 표현구조를 허용하게 되는 동기는 (11f)와 (11k)처럼 접속사 ‘i’를 사용하여 기수사의 출현을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quart’의 사용에 기반한 카탈루냐의 전통적 시각 표현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분’에 입각한 시각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그들만의 시각표현 문화이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시각 표현에서의 모호성

다음 대화문을 보자.

www.kci.go.kr

Liam : Perdoni. Que hi ha una farmàcia, en aquest barri?
Dona : Sí, a la cantonada. Però, no és oberta, és l'hora de dinar.
Liam : I sap a quina hora obren?
Dona : Sí, a les cinc.
Liam : Gràcies ... I perdoni ... Quina hora és, ara?
Dona : Són dos quarts de cinc.
Liam : Dos quarts de cinc?
Dona : Bé, entre dos i tres quarts. O sigui: dos quarts i mig de cinc.
Liam : Ho sento, però no l'entenc. Quina hora diu? Les quatre trenta?
Dona : Sí, home, però més exactament, les quatre i trenta-set o trenta-vuit minuts.

Ibarz and Ibarz((2005: 95)²¹⁾

이 대화문에서 Liam이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하여 'Quina hora és, ara?'라고 묻자 Dona는 먼저 'Són dos quarts de cinc.'이라고 대답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카탈루냐어 전통 방식으로 'dos quarts'는 '30분'을 의미하므로 Dona의 대답은 당연히 '4시30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Liam이 'dos quarts de cinc'의 의미를 몰라 재차 질문을 하자 Liam은 'dos quarts'와 'tres quarts'의 사이라고 하면서 다시 'dos quarts i mig de cinc'라고 이전에 대답한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대답을 한다. 이에 혼돈을 느낀 Liam은 다시 국제적 방식으로 '4시30분(Les quatre trenta)'(cf.(3a))인지 확인코자 묻자 Dona는 오히려 모순되게 '정확하

21) 이 대화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Liam : 죄송합니다만, 약국이 이 마을에 있나요?
Dona : 예, 모퉁이에 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라 열려있진 않아요.
Liam : 그러면 몇 시에 여는지 아시나요?
Dona : 예, 다섯 시에 엽니다.
Liam :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몇 시죠?
Dona : 다섯 시까지 dos quarts 지났습니다.
Liam : 다섯 시까지 dos quarts 지났다고요?
Dona : 그렇죠, dos quarts와 tres quarts 사이죠. 말하자면 다섯 시까지 2½ quarts 지났습니다.
Liam :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 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시 30분을 말씀하시는건요?
Dona : 예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4시 37분 또는 38분입니다.

게 얘기하자면 4시 37분이나 38분'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게 된다.

Ibarz and Ibarz(2005)는 이러한 상황이 'quart'에 기반한 시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한다. 결국 위 대화문에서 Dona가 'Són dos quarts de cinc.'라고 말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4시 30분'을 의미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Dona가 부연하는 것처럼 'entre dos i tres quarts'와 'les quatre i trenta-set o trenta-vuit minuts.'를 'Són dos quarts de cinc.'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결국 타종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의 타종이 이루어졌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세 번의 타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entre dos i tres quarts'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Liam이 기수사를 사용하여 소위 국제적 방식으로 'Les quatre trenta'라고 묻기 때문에 'les quatre i trenta-set o trenta-vuit minuts.'라고 부연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결국 구체적인 시각을 '분'의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대화문에서 Dona가 전통적 방식과 국제적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Liam이 'Les quatre trenta'냐고 물을 때 동의를 하면서도 'les quatre i mitja'라는 발렌시아 방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발렌시아 방언은 이 경우 '4시30분'을 의미할 수 있지만 카탈루냐 전통 방식은 기준시를 전치사 'de'에 후행시키는 특성과 더불어 '30분'을 'dos quarts'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s quarts'가 '30분'의 의미와는 별도로 왜 모호한 'entre dos i tres quarts'와 같은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카탈루냐어의 시각의 표현에서 'un quart', 'dos quarts', 'tres quarts'외에도 'Són quarts de cinc.'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즉 명사 'quart'를 수식하는 기수사 'un', 'dos', 'tres'의 출현이 없는 시각 표현이 존재한다. Torres i Vilatarsana(2001: 181-182)는 'quarts de X'의 구조의 경우 Llívia 지역에서는 'quarts de 10'가 '10시30분'을 의미하지만 Bescaran 지역에서는 'dos o tres cuartos de 9'와 동일하게 받아들이며 Ulldecona 지역에서는 'quarts de 9'를 '8시30분'의 강조적 표현이라고 하는 등 각 지역마다 다른 해석 방법을 보인다고 한다. Torres i Vilatarsana는 *Gran Diccionario de la Lengua Catalana*에서 'quarts de X'가 매 시각의 '30분'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거나 일반적으로는 광범위하게 'un quart'를 막 지난 시점과 'tres quarts'에 이르

기 직전 사이를 아우르는 부정확한 시간대를 일컫는 표현으로 설명한다고 언급한다.²²⁾

다음 대화문을 보자.

Gabriel : (Si,) que et sembla si quedem al Zurich despres del passeig?

Cap alla a les onze?

John : Si, quedem a les onze ... millor a quarts de dotze.²³⁾

Ibarz and Ibarz(2005: 148)

위 대화문은 Gabriel이 11시경 쯤 만나자는 약속 제안에 John이 처음에는 11시에 만나자고 말하다가 ‘11시반경에’라는 의미로 ‘a quarts de dotze’를 사용하는 예시 대화이다. 카탈루냐어에서는 ‘dos quarts de dotze’ 나 ‘quarts de dotze’ 모두 11시 16분부터 11시 44분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시각을 의미 할 수 있는 ‘11시 반 경’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cf. Badía i Margarit(1994), Mestres et al.(1995), Bahía et al.(1997), Abril(1997)). 적어도 ‘un quart’나 ‘tres quarts’가 아니라면 카탈루냐어에서는 ‘dos quarts de X’ 나 ‘quarts de X’는 시각 표현에서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

IV. 맺는말

카탈루냐어의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은 정시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다가올 ‘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quart’에 기초한 시각 표현을 한다. 이러한 전통적 시각 표현 방식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분’개념을 사용하는 다른 여러 언어와 달리 정확성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며 결국 이와 관련된

22) Torres i Vilatarsana가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pressió per indicar els dos quarts d’una hora concreta o bé, més generalment, un espai de temps que pot oscil·lar entre poc després del quart i poc abans de tres quarts”.

23) 대화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Gabriel : (응,) 우리 산책 후 Zurich에서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11시경쯤?
John : 좋아, 11시에 만나... 아니 11시 반 경이 좋겠다.

변이형과 방언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표현들은 IEC가 규범 문법에 의거한 고유의 방법 외에도 다양한 시각 표현 방식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언어들과 다른 카탈루냐어만의 독특한 시각 표현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시계라는 생활 도구의 표기 체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시계의 발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에서 ‘quart’의 사용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시각 표현의 모호성은 결국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대중에게 정확한 시각 표현을 알리고자 하는 언론에서도 다양한 표현들의 존재로 인해 혼돈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

‘분’개념이 아닌 ‘quart’에 입각한 시각 표현이 카탈루냐의 고유한 언어문화라면 IEC는 발렌시아 지역의 표현도 발렌시아인의 교유의 언어인 발렌시아어에 기초한 표현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현상을 굳이 카탈루냐어의 잣대로 방언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표기 방식이라는 기술은 언어를 연구하는 IEC라는 기관이 견지하기에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언어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bril, J. *Diccionari pràctic de qüestions gramaticals*, Barcelona, Edicions 62, 1997.
- Alcover, A.M. and F. de B Moll, *Diccionari català-valencià-balear*, Palma de Mallorca: Moll, 1980.
- Badia i Margarit, A.M., *Gramàtica catalana*, Editorial Gredos, 1962.
- Badia i Margarit, A.M., *Gramàtica catalana*, Proa: Barcelona, 1994.
- Badia, L., Brugarolas, N., Torné, R. i Fargas, X., *Llibre de la llengua catalana*, Barcelon: Edicions Castellnoua, 1997.
- Cinque, G. and Rizzi, *Mapping Spatial PP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orbera, J., *Parlar bé*, Vilassar de Mar, Oikos-tau, 1996.
- Di Sciullo, A. and M. Español-Echevarría, “Time-counting expressions as aspectual complex numerals”. *Revista Letras, Curitiba*, ufrp, n.96 (versão eletrônica), 2017.
- Dols, N. and R. Mansell, *Catalan: An Essential Grammar*. Routledge, 2017.
- Enciclopèdia Catalana. *Diccionari.cat* <http://www.diccionari.cat>.
- Fabra, P., *Gramàtica de lengua catalana*, Barcelona: L’Avenç, 1912.
- Francisca Olmedo de Cerdá, M., *Callejeando por Valencia*, Carena Editors, S.L., 2003.
- Generalitat de Catalunya, <https://web.gencat.cat>.
- Ibarz, T. and A. Ibarz, *Colloquial Catalan*. Routledge: New York, 2005.
- Institut d'Estadística de Catalunya, <https://www.idescat.cat>.
- Institut d'Estudis Catalans, *Diccionari de la llengua catalana (segona edició)*. <https://dlc.iec.cat/index.html>.
- Institut d'Estudis Catalans, *la nueva Gramàtica de la llengua catalana*, Institut d'Estudis Catalans, 2016.
- Martínez Celdrán, E., “Los dialectos catalanes y su prosodia”, in J. Dorta (ed), *Temas de dialectología*, La Laguna (Tenerife): Instituto de Estudios

Canarios, 2007.

Mestres, J.M., Costa, J., Oliva, M., Fité, R., *Manual d'estil*, Barcelona, Eumo/Universitat de Barcelona/Universitat Pompeu Fabra/Associació de Mestres Rosa Sensat, 1995.

Puig i Gros, T. and J. Puig I Gros, *Vine!: curs de català inicial*, Ediciones de la Universitat de Barcelona, 2000.

Real Academia Española y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2009

Royo, J., “La influència del campanar en les expressions horàries”, *Segon congrés internacional de llengua catalana, IV, Àrea 3 Lingüística social*, Palma de Mallorca, UIB, 1992

Torres i Vilatarsana, M., “L’expressió de les hores en català: anàlisi contrastiva”, *Caplletra*, v.30, 2001.

❖ ABSTRACT

The linguistic and cultural phenomena derived
from the interpretative ambiguity in the
traditional Catalan time telling expressions

Kwak, Jaeyong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Institut d'Estudis Catalan, it is noted that the traditional Catalan time telling system is essentially based on delineating time by the use of the 'quarts (=quarters)' of an hour. In this fashion, to tell the time 8:15, 8:30 and 8:45 they use 'És un quart de nou,' 'Són dos quarts de nou,' and 'Són tres quarts de nou,' but do not use constructions such as 'Són les vuit i quinze,' 'Són les vuit i trenta/mitja,' 'Són les vuit i quaranta-cinc,' because these expressions are considered to be as dialectal variants or international notation-based variants. Moreover, the traditional Catalan time telling system does not use cardinal numbers, except in the case of 'cinc (five)' and 'deu (ten).' These linguistic phenomenon cause the invention of a unique Catalan digital watch, and has noted special designs for the creation of a Catalan analogue watch. For this reason, the quarter system in colloquial Catalan provokes an enormous interpretative ambiguity in daily routine expressions with 'quarts' like 'Són quarts of nou.' or 'entre dos i tres quarts' whose meaning is not delineated between sixteen and forty-four minutes.

We will argue that the traditional Catalan time telling expressions do not have the use of the subtractive system, and the fraction word 'quart' lacks a specific meaning of fifteen minutes because the Catalan word 'quart' is etymologically related to the classical public bell system, not definitively to the traditional clock system.

Key Words : Catalan time telling system, bell system, interpretative ambiguity,
quart (=quarter)

■ 논문접수일 : 2018. 02. 10

■ 심사완료일 : 2018. 02. 28

■ 게재확정일 : 2018. 03. 01

